엔터테인먼트

Sector Issue Brief 2026. 01. 05

업종 투자심리 반등 국면

Check Point

- 연말 연초 엔터 업종 주가 반등 흐름 지속
-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 국면에 돌입
- 26 년에도 주요 아티스트 컴백 모멘텀 지속

| Analyst **박성호** | shpark@ls-sec.co.kr

연말 연초 엔터주 주가 반등 흐름 지속. 상반기까지는 유효한 모멘텀

지난 12월 엔터테인먼트 업종 주가는 반등 흐름을 이어감. 12월 한 달간 하이브, SM, JYP, YG의 주가는 각각 13.0%, 25.7%, 6.3%, 8.9% 상승하며 코스피(+7.5%)를 상회. 7~11월동안 4개사의 주가는 각각 -4.5%, -24.9%, -8.8%, -31.8%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27.1%)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엔터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는 본격적인 회복 및 반등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엔터테인먼트 업종 반등의 주요인은 크게 두 가지. 1)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재부각, 2) BTS와 블랙핑크 등 대형 IP의 컴백. 해당 두 가지 모멘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형 IP의 컴백 활동이 실적에 본격 반영될 2분기부터는 실적 중심의 주가 흐름으로 전환될 전망

본격화되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움직임

올해 드림콘서트는 2/6~7일 약 5만 석 규모의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개최 확정.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개최되는 첫 사례이며, 개최지가 중국이라는 점이 주가 반등의 주요 트리거로 작용. 이번 콘서트는 중국의 공연 기획사 '창사통구문화유한회사'가 공동 주최로 참여. 중국 현지 기업이 K-Pop 공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올해 중국 본토 내 K-Pop 공연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판단. 더불어 이번 드림콘서트는 중국 내 대형 방송사 '후난위성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

1/4~7일 예정된 정부의 중국 방문과 함께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발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제사절단 참여 보도 이후 엔터 4사의 주가 강세 흐름 지속. 지난 10월 APEC 회의 당시에도 한한령 해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국내 엔터사 및 K-Pop 아티스트들의 중국 본토 진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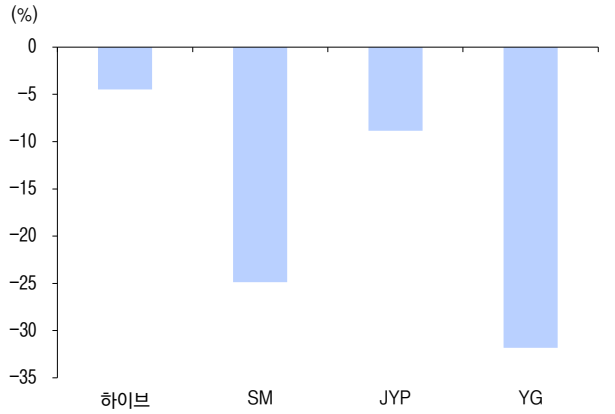
이어지는 대형 IP의 컴백

BTS의 컴백 날짜는 3/20일로 예정. 구체적인 활동 스케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BTS 관련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 이번 컴백 월드 투어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350만 명 수준의 모객 예상. 북미 투어가 집중되는 하반기에 실적 반등 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다소 위축된 MD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 회복이 동반될 것

이 외에도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블랙핑크와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뱅의 컴백 예정. 특히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 블랙핑크의 경우 현재까지 13개국 27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약 150만 명 수준의 관객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매가 예상되는 신보에 대한 기대감 또한 확대되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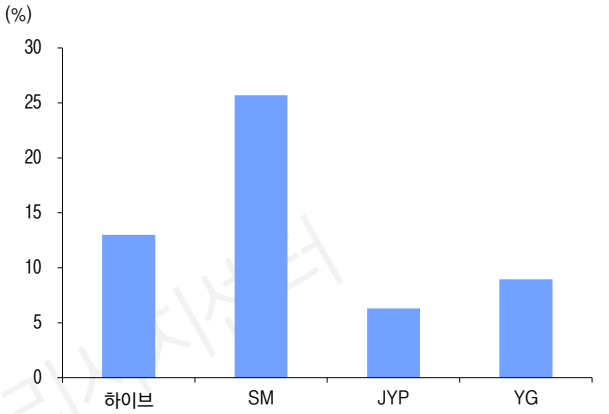
EXO의 경우 1/19일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컴백 활동 예정. 활동 빈도가 낮은 고연차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팬덤 파워를 보유하고 있어 엔터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EXO의 유닛인 첸백시의 올해 드림콘서트 참여가 확정되면서 컴백 이후 중국 내 직접적인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확대

그림1 7-11 월 엔터 4 사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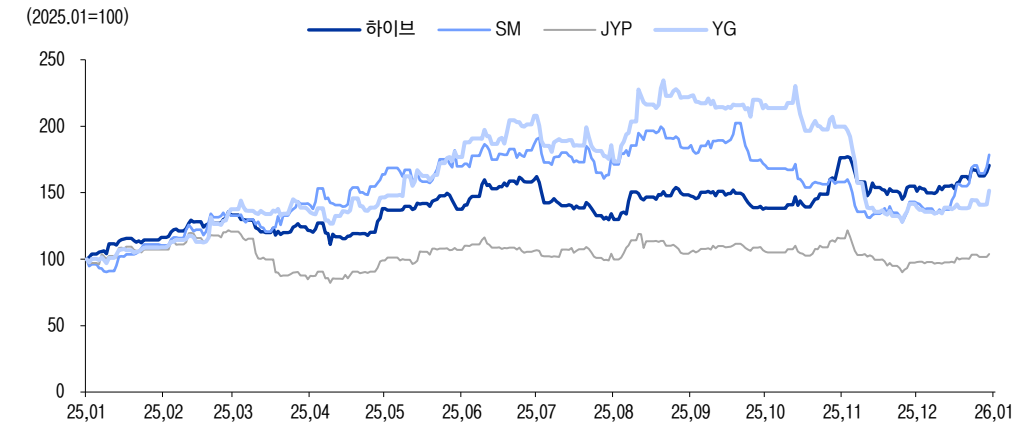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12 월 엔터 4 사 주가 수익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5 년 연간 엔터 4 사 상대주가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2026 홍콩 드림콘서트 개최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스포츠 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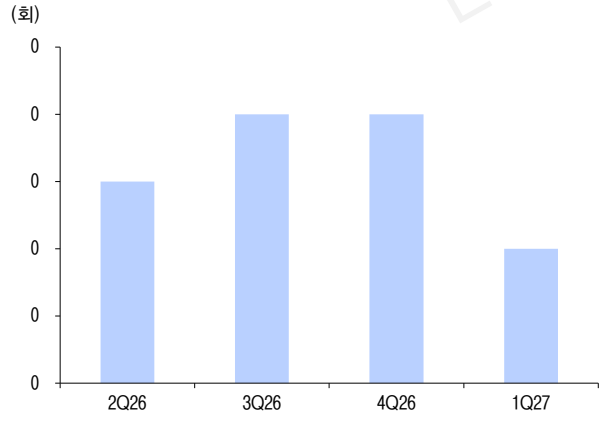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중국의 한한령 관련 주요 이슈 타임라인**

시기	내용
2016 ~	- 한국 연예인 중국 프로그램 출연 중단 - 한국 콘텐츠 신규 심의 중단 - K-Pop 아이돌 중국 내 광고/행사 전면 취소
2017	- 외교 관계 개선했으나, 한한령 유지
2022	- 국내 일부 드라마/콘텐츠 중국 내 방영
2023	- 일부 국내 연예인의 중국 현지 브랜드 행사 참석
2024	- 일부 국내 가수의 중국 내 공연 허가
2025	- APEC 정상회의에서 한한령 해제 이슈 부각 -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 첫 홍콩 드림콘서트 개최 및 중국 전역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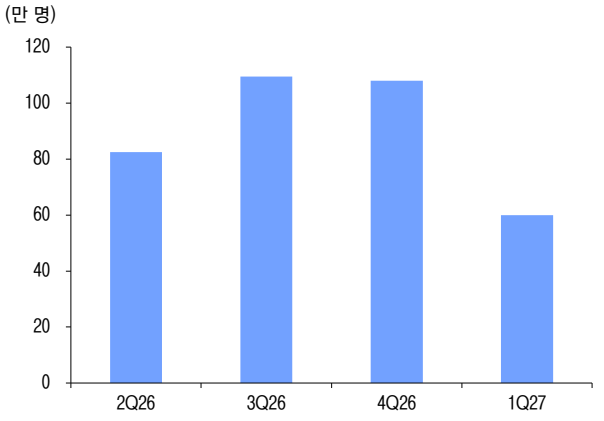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BTS 컴백 투어 공연 횟수 추정**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BTS 컴백 투어 공연 모객 수 추정**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성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8.7 %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1.3 %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1. 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LS증권 리서치센터